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보살을 논하다



괜찮아 괜찮아
장범용 지음
자유문고 / 1만4천원

드라마 '나의 아저씨'서 '보살' 찾아
10개 이야기 통해서 깊은 불교 공부
드라마 추구한 인간상, 바로 '보살'
'대승보살' 통해 '나의 아저씨' 해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드라마 '나의 아저씨' 캡쳐.

"마음공부 하러 왔습니다."

"네, 마음공부 하러 왔죠. 그런데 왜 마음을 공부해요? 다들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공부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편의 드라마 곳곳에서 부처님 말씀이 보인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책 〈괜찮아 괜찮아〉의 부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보살을 만나다'이다. 부제에서 보듯이 책의 핵심 얼개는 2018년 3월에 방영됐던 16부작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이다.

책은 열 개의 이야기에서 저자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들을 소개한다. 배우들의 대사도 소개한다. 한 편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저자의 공부가 시작된다. 저자의 '논'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경전이고 책은 그것의 논서다. 저자의 '논'은 가볍지 않다. 이어지는 리뷰의 문법도 '불교'다. 가벼운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책은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묵직해진다. 유식론, 대승보살, 육바라밀, 유마…. 책을 읽고 나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숙제가 남는다. 독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숙제의 중량은 각각 다르겠지만, 최소한 드라마를 찾아보거나 다시 보거나, 그리고 책에는 많은 밑줄이 남게 된다. 그 밑줄이 모두 숙제다. 저자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 현실에서의 보살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따뜻한 본성을 보여주는 후계동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보살의 삶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이다. 책은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기획의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자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그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키워드를 불교의 대승보살로 보았다. 그리고 '대승보살'이란 개념을 통해 '나의 아저씨'를 해부하고, '나의 아저씨' 야말로 깨달음의 노래이자 대승의 노래임을 보여준다. 아니, 반대로 '나의 아저씨'를 통해 '대승불교'를 설명해 내고, '보살'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책은 대승과 보살에 대한 색다른 형식의 안내서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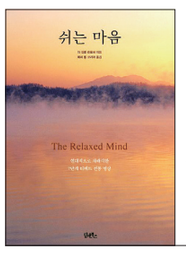
저자는 '나의 아저씨'가 그리고자 한 '인간의 근원에 깊이 뿌리 닿아 있는 사람'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 '보살'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세 가지 대사에 끌려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같이 지랄 맞은 년이랑 살아봐야 득도해" "달릴 때는 내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 같아요" "나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또 태어날 수 있어 괜찮아요" 저자는 이 세 대사를 중심으로 대승보살이라는 필터를 끼고 드라마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재가보살인 유마 거사를 마주하기도 하고 원효와 니체, 그리고 보살 예수를 만난다. 무상(無常)을 만나고 무주(無住)를 만나고 공(空)을 만난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만나고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을 만난다.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따뜻한 도반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진실한 '보살'의 모습을 그려낸다. 물론 우리가 진짜로 만나게 되는 보살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인 동훈, 겸덕, 정희, 지안… 그리고 후계동 사람들이다.

저자는 "'각자도생'을 생존의 지혜처럼 되뇌이는 지금의 현실은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 거사'와 같은 대승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살의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서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 보살의 마음을 한 드라마에서 만났고, 책은 그 둘의 변주를 기록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괜찮아 괜찮아'라는 제목은 '나의 아저씨' 속 인물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공감의 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심이 돼요' '든든했어요' 등으로 표현되며 상대를 편안함에 이르게 한다. 이들이야말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살의 마음으로, 큰 수레(大乘)에 함께 타고 공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저마다의 터전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는 보살들이다.

이처럼 책은 평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한 저자의 마음 깊은 헌정이자 보살로서의 삶에 대한 희구이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공업의 한 사람으로 들어보는 죽비가 아닐까.

'쉼'에 시작하는 일곱 가지 명상



쉬는 마음
쟈 낄뢍 린포체 지음
예셰 롱 코리아 옮김
담앤북스 / 1만7천원

쟈 길룽 린포체 〈쉬는 마음〉 개정판
완전히 새로운 번역과 편집 제목
2월 7~16일 은해사서 안거수행 지도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 쟈 길룽 린포체의 방한을 앞두고 그의 대표작 〈쉬는 마음〉이 출간됐다. 이 책은 2019년 출간된 〈쉼의 기술〉의 개정판으로 완전히 새로운 번역과 편집의 책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일곱 단계의 명상은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길이며, 본질은 '쉼'이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가지 명상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곱 가지 명상은 특정 종교 전통을 따르고 말고를 넘어 모든 사람의 삶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 가지 명상은 서양인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서양문화가 모든 곳에 퍼져 여러 문화와 섞여 있기 때문에 '현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부의 명상은 바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첫 번째 명상, 기본 명상에서는 마음과 몸을 함께 쉬게 하며, 올바른 명상 자세를 익힌다. 두 번째 명상, 고요히 머무는 명상에서는 주의 집중 대상을 활용해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는다. 세 번째 명상, 다듬어진 명상에서는 고요함을 명징함과 영감으로 발전시키며 내면의 에너지를 발견한다. 네 번째 명상, 통찰 명상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명료한 시각을 키운다.

2부의 명상은 내면의 깊은 품성과 조화를 강조한다. 다섯 번째 명상, 깊은 마음 열기 명상에서는 자비심의 기초가 되는 무한한 평등심을 기른다. 여섯 번째 명상, 순수한 마음 명상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 일곱 번째 명상, 개념 짓지 않는 명상에서는 본래의 순수성을 경험하며 마음의 와전한 자유를 누린다.

'깨달은 스승'으로 불리는 직메 오찰 갸초의 다섯 번째 환생자로 알려진 쟈 낄룽 린포체는 1988년 미국 시애틀에서 비영리단체인 낄룽 재단을 설립한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저서 〈쉬는 마음〉을 통해 티베트 전통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명상법을 전수하고 있다.

쟈 길룽 린포체는 2월 7~16일 영천 은해사에서 한국 불자들에게 직접 안거 수행을 지도한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찰



알아차림의 기적
아남 툽텐 지음, 이창엽 옮김
담앤북스 / 1만7천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세계적 명상가 아남 툽텐 린포체의 대표작 〈알아차림의 기적〉에서 깨달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며,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지난해 말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개정판이 출간됐다. 2014년 출간된 〈알아차림의 기적〉은 지난 10년 동안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개정판은 번역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표지를 새롭게 바꿨다.

책의 저자 아남 툽텐 린포체는 "깨달음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찰"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수행을 하거나 심각해질 필요가 없고,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를 풀어주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단지 모든 걸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현듯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이 지어내는 모든 것을 즉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망상과 슬픔, 분노, 미움, 외로움, 불안, 시기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실 이는 우리 의식의 화려한 놀이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어낸 허구를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 집착, 착각, 강박이 일으키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순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 경이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과거의 나와 깨끗이 단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과거의 '나'가 죽을 때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티 없이 순수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로 내면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간마다 순수의식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깨어나는 순간, 개념적인 삶과 마음이 만들어낸 삶은 곧 사라져버린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저자는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하고, 특정 종파에 국한되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과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복잡한 불교 교리 대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유머, 자신의 수행 경험으로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낸다. 박재완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 탐구!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역사상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여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안성두 지음/신국판/무선/396쪽/값 25,000원

원효가 구축한 불교사상의 전모를 보다
분황원효불교사상사
세계적인 불교사상가이자 철학자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영섭 지음/신국판/양장/832쪽/값 50,000원

온 세대가 함께 읽는 〈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깨달음의 여정을 담은 십우도를 현시대 흐름에 맞게 재창조하여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재미,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린 성장소설이자 SF/판타지 소설이다.
김태라 지음/사륙변형/양장/16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